

「18세에 1표 - 세계의 학교」(한국·서울 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 2016. 1. 30.)

정책판단력, 토론으로 연마

한국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의 청사에 1월 15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24명이 시간에 맞춰 모였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국가기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어린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겨울방학중인 초·중학생에게 공모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토론체험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현화 팀장은 ‘토론 훈련을 계속하면, 정치적 주장을 접했을 때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개최 목적을 말했다.

이 날의 주제는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가?”이다. 찬성측과 반대측 팀으로 각 3명이 선발되고, 나머지 1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분간의 작전회의를 시작했다. ‘발언은 간결하게’ 대학생토론대회에 입상경험이 있는 지도 역할의 대학생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주장하는 내용과 순서를 결정해 간다.

토론에서는 각 팀이 1분 이내에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설명한다. 행사장의 스크린화면에는 남은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된다. ‘전화가 울리면 신경쓰여서 공부가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대측에 대하여 ‘자신의 물건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찬성측은 반박한다. 주장의 차이를 명확히 한 다음에 자유토론을 시작했다.

대학생의 조언과 작전회의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지켜보던 어린이들도 토론 도중에 참가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맡긴 후에 성적이 올라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후 각 팀에서 1분 이내로 ‘학생의 주체성보다 수업방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반대측), ‘자제심을 기르는 의미에서도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찬성측) 등의 마무리 의견을 말하고 토론은 끝났다. 지도 역할의 대학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등의 강평이 있었다.

찬성측 팀의 중학교 2학년 우채림(13) 학생은 ‘생각의 다양성을 배웠고, 상대방의 주장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체험회를 전국에 확대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이노우에 기자)

사진 설명

토론 전에 지도 역할의 대학생과 주장하는 내용을 의논하고 있는 어린이들
(선거연수원 청사에서)

선거의 기본 데이터

	한국(국회의원선거)	일본(중의원선거)
선거권 연령	19세	아직 20세
피선거권 연령	25세	25세
청년 투표율	47.2% (19세, 2012년 4월)	32.58% (20대, 2014년)

「선거연수원」 등에서 40만명에게 출장수업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투표율이 70%대였으나 계속 낮아져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4.2%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참가를 촉구하는 주권자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기관인 ‘선거연수원’과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까지 출장수업을 시행하여 민주주의 원리와 선거의 의의 등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선거에 사용된 투표함을 이용하여 모의투표도 하고, 교칙 등 학생에게 밀접한 주제의 토론회도 실시하여 매년 40만명 이상이 수업을 받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겨울방학 등에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연수회도 실시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의 고선규 교수는 ‘정치참가를 높이려면 어릴 때부터 주권자 교육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